

〈基調 講演〉

영남지역 퇴계학맥과 그 문화

김광순*

— || 차 례 || —

1. 머리말
2. 연구계획, 목적, 방법, 내용
3.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내용 및 실적
4. 영남지역의 퇴계학맥과 그 문화
5. 맺는 말

【국문초록】

오늘 본교 퇴계연구소와 국제퇴계학회대구경북지부가 공동 주최하는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영남지역 퇴계학맥과 그 문화”라는 큰 주제로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함에 있어 기조강연을 맡은 김광순입니다. “영남지역 퇴계학맥과 그 문화”의 본래 과제 명제는 “영남지역 퇴계학맥과 그 문화의 데이터 베이스 구축”임을 양지 하시고 연구진은 본인이 연구책임교수이고, 박영호, 이문기, 강민구 교수가 공동연구원, 5명의 전임연구원, 박사과정 7명, 석사과정8명으로 구성되었다. “영남지역 퇴계학맥과 그 문화의 데이터 베이스 구축”이라는 원래의 과제 명칭에서 오늘 논문발표대회는 “데이터 베이스 구축”의 전 단계이므로 “영남지역 퇴계학맥과 그 문화”라고 편의상 붙인 것이다.

그래서, 오늘 개최하는 학술 발표대회의 내용을 말하기 전에, 2002년도 8월 1일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인문사회분야 기초학문 육성사업단으로 선정된 “영남지역 퇴계학맥과 그 문화의 데이터 베이스 구축”이라는 과제 수행의 연구계획과 목적, 그리고 연구 방법과 내용,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내용 및 실적 등에 대해 간단하게 연

* 국제퇴계학회대구경북지부장 경북대 명예교수

급한 후에, 오는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할 5편의 주제에 대한 기본 연구 방향을 언급함으로써 기초강연을 대신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기초강연을 마치면 임종진교수의 사회로서 발표자는 이군선박사의 <배현 금보의 도산기 고종과 정존재 잠고증에 대하여>, 김인철박사의 <퇴계학맥 문집소재잠명류에 대한고찰>, 이정화박사의 <퇴계문인의 학퇴계정신이 누정제영에 반영된 계승양상>, 서신혜박사의 <산산지방 서원의 취철과 오유거사전>, 유영옥박사의 <학봉 김성일의 제례의식과 행례>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될 것이다.

오늘 다섯 편의 주제발표를 마치면 곧 이어서 이문기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김종철 교수, 오용원 교수, 우인수 교수, 이수환 교수, 정우락 교수의 종합토론이 진행되고, 또한 방청석의 질문을 함께 받아 논문완성에 참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를 맡아 주실 다섯 편의 전임연구원과 종합토론에 참가해 주실 교수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주제어 특수문화, 한국학술진흥재단, 영남지역의 퇴계학, 연구목적

1. 머리말

오늘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와 국제퇴계학회대구경북지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기초강연을 하게 된 경북대학교 명예교수이며 국제퇴계학회 대구경북지부장입니다.

“영남지역 퇴계학맥과 그 문화”라는 주제로 발표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가 2002년도 8월 1일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인문사회분야 기초학문 육성사업단으로 선정된 “영남지역 퇴계학맥과 그 문화의 데이터 베이스 구축”이라는 3년차 과제를 수행하던 중 2년까지의 결과를 마무리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따라서 “영남지역 퇴계학맥과 그 문화”의 본래 과제 명제는 “영남지역 퇴계학맥과 그 문화의 데이터 베이스 구축”임을 양지하시고 정청해 주시길 바

란다. 그러나, “영남지역 퇴계학맥과 그 문화의 데이터 베이스 구축”이라는 원래의 과제 명칭에서 오늘 논문발표대회는 “데이터 베이스 구축”의 전 단계 이므로 “영남지역 퇴계학맥과 그 문화”라고 편의상 붙인 것이다.

그래서, 오늘 개최하는 학술 발표대회의 내용을 말하기 전에, 2002년도 8월 1일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인문사회분야 기초학문 육성사업단으로 선정된 “영남지역 퇴계학맥과 그 문화의 데이터 베이스 구축”이라는 과제 수행의 연구계획과 목적, 그리고 연구 방법과 내용,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내용 및 실적 등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한 후에, 오늘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할 5편의 주제에 대한 기본 연구 방향을 언급함으로써 기초강연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2. 연구계획, 목적, 방법, 내용

“영남지역 퇴계학맥과 그 문화의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수행하는 연구팀은 2002년 8월 1일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인문사회분야 기초학문 육성사업단으로 선정되어 2004년 4월 현재 연구책임 교수 1명(김광순), 공동연구교수 3명(박영호, 이문기, 강민구), 박사급 전임연구원 5명(이군선, 김인철, 이정화, 서신혜, 유영옥 박사), 박사과정 8명(김영주, 김우동, 방동수, 이경미, 이지락, 전백찬, 최은주, 최홍조) 석사과정 7명(권유은, 권형준, 박경수, 변승준, 이준구, 우지영, 장지윤)으로 구성되어 사업을 추진해 왔다. 본 연구팀이 지향하는 연구목표는 이미 보편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중요한 국제적 학문대상의 하나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퇴계학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퇴계와 그의 제자들 사이에 이루어졌던 학문적 전승과 심화의 양상을 탐구하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는 상당부분 국부적·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사업은 바로 그러한

기왕의 연구가 갖는 한계성을 보완·보족하면서 퇴계학을 퇴계학맥이라는 커다란 흐름 속에서 유기적·입체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팀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전통문화와의 단절과 그로 인한 정체성의 부재를 과거에 대한 반성적·발전적 계승의 측면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에 따라 조선시대의 대표적 선현인 退溪 李滉과 그의 學脈에 대한 입체적이고 유기적인 연구를 중심 과제로 설정하였다. 또한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6개 분야-人物·文集·書院·樓亭·古文書·D-base구축으로 나누어 연구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인물 분야는 蒼霽 權斗經의 <陶山及門諸賢錄>에 수록된 310명의 문인 가운데 27명-琴應夾, 琴應燠, 金澤龍, 李元承, 金生溟, 朴士燾, 白見龍, 申元錄, 鄭崑壽, 鄭惟一, 曹光益, 金圻, 金功, 金士元, 金宇宏, 金宇顯, 金隆, 南夢鰲, 朴遂一, 朴承任, 朴雲, 裒紳, 孫英濟, 李安道, 鄭述, 黃應奎, 黃俊良-을 중심으로 하여, 대상인물에 대한 간략 정보/상세 인물정보/관련자료(역문 및 원문) 순으로 입력하였다. 상세 정보에서는 문인들 간의 업적에 대한 편차가 큰 관계로 다소 일관적이지 못한 듯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출생/가계/성장과정/수학과정/사환관계/학문적 교류/후학 양성/학문적 업적/제향 등의 순으로 기술하였다. 문집이 현전하는 86명의 인물을 설정하고, 선정된 인물에 대해서는 다시 3개의 地域으로 분류하고, 그들의 문집에 수록된 年譜·遺事·行狀·墓碣銘·墓誌銘·諡狀·祭文뿐만 아니라 官撰史料, 人物志, 타인의 문집에 수록된 전기 자료를 번역함으로써 대상 인물의 생애를 더욱 입체적으로 구성·기술하고 있다.

문집 분야는 문집이 현전하는 규문제자들의 문집 현황을 대표화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고, 나아가 퇴계학맥을 이루는 사숙제자들의 문집까지 그 일람표를 작성하여 사승관계의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무엇보다 특징적인 면은 문집의 목차를 모두 DB화하여 검색하기 편하게 하였다는 점이며, 퇴계와의 수답시문과 단사, 제문 등을 모두 수록하였다. 각 문집의 해제와 서지사항, 목차의 입력, 서문과 발문·주요 시문의 원문 입력 및 번역 그리고 원전의 스캔 작업까지 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들을 수행함으로써 문집을 통한 퇴계학맥의 전승 양상을 조망하고 있다.

누정 분야의 연구 방향은 제2차년도 과제 수행 대상에 해당하는 지역은 의성, 영천, 경주, 영덕, 포항, 경산, 청도, 군위 등이다. 1차년도의 조사에서는 조사대상 지역이 주로 안동에 치중했던 것과 달리, 2차년도에서는 해당 지역인 8개 시, 군의 누정을 모두 조사하여 각 지역에서 활동한 도산의 급문제자들의 작품 양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 제2차년도의 과제 수행은 문헌 자료 조사를 근거로 하고, 각 해당지역 지문위원의 협조를 받아, 총 14회(영천 3회, 의성 3회, 경산 2회, 영덕 2회, 청도 1회, 군위 1회, 경주 1회, 포항 1회)의 현지 조사를 통해 201개소의 누정에서 자료를 추출하였으며, 급문제자들의 생활문화가 담겨 있는 작품들을 조사 분석하여 영상 자료와 함께 DB화하였다.

서원 분야의 연구는 영천, 의성, 경주, 영덕, 포항, 경산, 청도, 군위 등 경북 중남부 8개 지역을 중심으로 <도산급문제현록>에 수록된 퇴계의 제자가 봉안되어 있거나 이들이 주로 활동했던 서원을 그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위와 같은 지역, 인물상의 기준에 따라 연구 대상을 선정하여 이들 서원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 및 문헌자료를 통하여 개별 서원의 건립과 훼손, 복원 및 현재의 상태에 대한 기초 조사를 수행하였다. 대상 서원에 배향된 인물의 개별 문집 및 <퇴계학자료총서>(1-60권), <한국문집총간>(1-300권), 기타 현재 추가 발견 자료 등에 수록된 해당 서원의 관련 詩文을 모두 조사하여 원문을 입력하고 번역하였다.

고문서 분야에서는 1차년도와 마찬가지로 모든 고문서를 해제·원문입력·DB화하며, 문서 종류별로 대개 2-3건을 번역한다. 각 문서 종류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기한다. 1차년도 연구 과제수행에서 미비했던 원본 이미지 작업을 진행한다. 현장 답사를 통한 고문서 원본의 촬영은 아니더라도, 기존 문헌에서 영인해 놓은 원본 자료를 스캐닝하여 영상 이미지 자료를 준비한 뒤 DB화한다. 1·2차 연구결과를 합쳐 <표>를 제시하여 2년간의 작업 결과와 한계점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채집한 고문서 자료가 退溪門徒 중 누구에게 편중되어 있는지를 가시적으로 알 수 있게 해 주고, 그로 인해 후속연구 작업에서 絶長補短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팀은 기초학문육성 연구사업을 시작한 이후, 연구의 질적, 양적인 향상을 이루기 위해 현재까지 퇴계학맥의 자료들을 최첨단의 영상시스템에서 데이터 베이스화하기 위한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본 연구팀의 연구원들은 1차년도부터 2차년도까지 국내외 학술지에 총 50편, 번역서 총 9편, 전문학술저서 총 10권을 발간하였다. 또, 본 연구팀에서는 국내외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국내학술대회에서는 총 10편의 논문을, 국제학술대회 및 국외학술대회에서도 총 4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3.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내용 및 실적

기 간	내 용		비 고
2003년 8월 1일 ~ 8월 31일	인 물	퇴계 학맥의 기본 자료를 정밀히 검토하여 대상인물 선정의 정확성을 판단한다.	
	문 집	문헌 등을 통해 연구 설계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수집한다.	
	누 정	제 2차년도 해당 지역의 누정에 대한 기초 정보를 문헌조사를 통해 파악한다.	
	서 원	문헌 등을 통한 기초 자료 수집 및 연구 설계함. 다른 팀과의 긴밀한 연락 체계를 갖춘.	
	고문서	기존 문헌을 바탕으로 고문서의 수집· 연구 계획을 작성	
	D/B구축 SW개발	각 항목별 자료 수합	
2003년 9월 1일 ~ 9월 30일	인 물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과제목표 수행에 부합하기 위해 기존의 1차년도 연구 대상인물을 수정한다.	
	문 집	수정 검토된 인물에 따라 대상문집을 조정하고 확보한다.	
	누 정	경산 지역의 누정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여 자료를 조사하고, 번역한다.	
	서 원	영천 지역 집중 답사 및 자료 수집 정리· 입력· 번역함.	
	고문서	《경북지방 고문서집성》에서 安東權氏 문중의 及門弟子 관련 고문서를 選取· 정리· DB화	
	D/B구축 SW개발	이미지 가공 계획 수립	
2003년 10월 1일 ~ 10월 31일	인 물	참고자료를 토대로 대상인물에 대한 기본정보와 상세정보를 구성한다.	
	문 집	참고자료를 토대로 대상문집에 대해 해제한다.	
	누 정	영천 지역의 누정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여 자료를 조사하고, 번역한다.	
	서 원	답사 및 자료 수집 정리 등 연구 진행의 문제점 보완. 의성 지역 사전 조사.	
	고문서	《경북지방 고문서집성》에서 義城金氏 문중의 及門弟子 관련 고문서를 選取· 정리· DB화	
	D/B구축 SW개발	원문 입력	
2003년 11월 1일 ~ 11월 31일	인 물	조사 파악한 대상인물의 문집에서 年譜, 行狀, 墓碣銘, 輓詞, 誄文, 祭文 등의 자료를 최대한 수집한다.	
	문 집	대상문집에서 퇴계금문자료(和次韻詩· 書簡· 及門弟子錄) 등의 자료를 최대한 수집한다.	
	누 정	의성 지역의 누정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여 자료를 조사하고, 번역한다.	
	서 원	의성 지역 집중 답사 및 자료 수집 정리하고 스캔작업을 실시함	
	고문서	《경북지방 고문서집성》에서 義城金氏 문중의 及門弟子 관련 고문서를 選取· 정리· DB화· 이미지 가공	
	D/B구축 SW개발	Tag 입력	

2003년 12월 1일 ~ 12월 31일	인 물	자료를 선별하여 번역을 진행한다.	
	문 집	추출한 자료의 원문입력과 스캔 진행	
	누 정	영덕 지역의 누정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여 자료를 조사하고, 번역한다.	
	서 원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입력·번역함. 경주, 포항 지역 사진 조사.	
	고문서	《경북지방 고문서집성》에서 及門弟子와의 연관성이 추정되는 고문서를 選取·정리·DB화	
D/B구축 SW개발	1차 수정, 문제점 보완		
2004년 1월 1일 ~ 1월 31일	인 물	추출한 자료의 원문입력과 스캔 진행	
	문 집	자료를 선별하여 번역을 진행한다.	
	누 정	청도 지역의 누정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여 자료를 조사하고, 번역한다.	
	서 원	경주, 포항 지역 집중 답사 및 자료 수집·정리하고 스캔 작업을 실시함	
	고문서	《경북지방 고문서집성》에서 及門弟子와의 연관성이 추정되는 고문서를 選取·정리·DB화	
D/B구축 SW개발	폼필드 가공		
2004년 2월 1일 ~ 2월 28일	인 물	자료를 선별하여 번역을 진행한다.	
	문 집	추출한 자료의 원문입력과 스캔 진행	
	누 정	경주 지역의 누정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여 자료를 조사하고, 번역한다.	
	서 원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입력함. 영덕, 경산 지역 사진 조사	
	고문서	《고문서집성》에서 豊山柳氏 문중의 及門弟子 관련 고문서를 選取	
D/B구축 SW개발	이미지 가공		
2004년 3월 1일 ~ 3월 31일	인 물	추출한 자료의 원문입력과 스캔 진행	
	문 집	자료를 선별하여 번역을 진행한다.	
	누 정	군위 지역의 누정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여 자료를 조사하고, 번역한다.	
	서 원	영덕, 경산 지역 집중 답사 및 자료 수집 정리하고 하고 스캔 작업을 실시함	
	고문서	《경북지방 고문서집성》에서 及門弟子 豊山柳氏 成龍·雲龍의 관련 고문서를 選取·정리·DB화	
D/B구축 SW개발	원문 입력		
2004년 4월 1일 ~ 4월 31일	인 물	문집이 남아 있지 않은 대상인물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참고할 만한 자료들을 적극 수집한다.	
	문 집	이전의 연구수행계획에서 조사가 미비하거나 문집을 확보하지 못해 누락된 대상문집을 검토하여 보완한다.	
	누 정	포항 지역의 누정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여 자료를 조사하고, 번역한다.	
	서 원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입력함. 청도, 군위 지역 사진 조사.	
	고문서	《경북지방 고문서집성》에서 及門弟子 豊山柳氏 成龍·雲龍의 관련 고문서를 選取·정리·DB화	
D/B구축 SW개발	Tag 가공		

2004년 5월 1일 ~ 5월 31일	인 물	정리한 대상인물의 가계도를 D/B화하기 위해 표로 정리한다.	
	문 집	이전의 연구수행계획에서 조사가 미비하거나 문집을 확보하지 못해 누락된 인물을 검토하여 보완한다.	
	누 정	의성, 영천 지역의 해당 누정에 대한 결과물을 검토, 수정한다.	
	서 원	수집한 자료를 총체적으로 정리하여 人物·文集·樓亭·古文書 등과 비교하여 몇 차례에 걸쳐 토론하고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정리함	
	고문서	《경북지방 고문서집성》에서 豊山 柳氏 고문서 이미지 가공	
	D/B구축 SW개발	이미지 가공	
2004년 6월 1일 ~ 6월 31일	인 물	수집한 자료들을 총체적으로 정리하여 남은 기간 동안 과제목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완한다	
	문 집	수집한 자료들을 총체적으로 정리하여 남은 기간 동안 과제목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완한다.	
	누 정	군위, 영덕, 포항 지역의 해당 누정에 대한 결과물을 검토, 수정한다.	
	서 원	수집한 자료를 총체적으로 정리하여 人物·文集·樓亭·古文書 등과 비교하여 몇 차례에 걸쳐 토론하고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정리함	
	고문서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답사, 대구 南平文氏 세거지 답사	
	D/B구축 SW개발	원문 입력	
2004년 7월 1일 ~ 7월 31일	인 물	2차 및 3차년도의 수행계획일정을 검토하여 수정 및 보완한다.	
	문 집	3차년도의 수행계획일정을 검토하여 수정 및 보완한다.	
	누 정	경산, 청도, 경주 지역의 해당 누정에 대한 결과물을 검토, 수정한다.	
	서 원	연구 결과의 발표 및 보고	
	고문서	정리한 자료를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연구 결과를 발표	
	D/B구축 SW개발	화면 설계, 구동 프로그램 개발 착수	

그리고 이 연구의 제2차년도 연구실적물을 집계한 결과, 한글 파일에 총 6,872페이지 분량의 내용이 입력되었으며, 그밖에도 이미지 자료 총 2,300장이 CD-ROM에 새로 저장되었다.

이와 같은 방대한 작업을 수행하면서 각 분야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을 연구과제로 하여 여러 차례의 연구발표를 가지고 토론과 조언을 받아서 논문으로 완성하여 학술지에 발표해 왔다. 오늘 학술발표회에서 퇴계학맥의 인물, 문집, 누정, 서원, 고문서 각 분야의 전문가인 이군선, 김인철, 이정화, 서신혜, 유영옥 박사 등 5명의 전임연구원이 <영남지역의 퇴계학맥과 그 문화>라는 큰 주제 아래 각각 맡은 바의 세부 주제발표도 이와 같은 동일 궤

도의 연장선상에서 개최되는 것이다.

4. 영남지역의 퇴계학맥과 그 문화

이번 학술발표회는 “영남지역의 퇴계학맥과 그 문화”라는 주제에 김광순 교수의 기조강연을 이어서 5명의 전임연구원이 세부 주제발표를 하게 된다. 이들 전임연구원들의 5편의 논제와 논문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발표자인 성균관대학교 이군선 박사는 「梅軒 琴輔의 陶山記考證 靜存齋箴考證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게 된다.

이 박사는 본 연구 논문의 서론에서, “퇴계의 학맥이 지속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인가? 그 중심에 퇴계라는 걸출한 학자가 있기도 하였지만 여기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퇴계 문인들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던 중 梅軒 琴輔의 「陶山記考證」과 「靜存齋箴考證」을 접하게 되었다. 「도산기고증」과 「정존재잡고증」은 스승인 퇴계의 글에 주석 작업을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經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석 작업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퇴계는 주자의 문장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朱子書節要』를 編次하고 난 뒤에, 또 일일이 書札에서 疑心나는 곳이나 難解한 구절을 풀이하였고 이것이 정리되어 『朱子書節要記疑』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다. 여기에는 節要의 書信에 대해 한 편 한편마다 字句가 풀이되어 있어 퇴계가 節要 書信에 관해 얼마나 精緻하게 考究하였는가를 알 수 있게 해 준다. 이와 마찬가지로 퇴계의 문인이 스승인 퇴계의 문장에 주석을 붙였다는 것은 퇴계의 문장을 그만큼 높이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퇴계의 문인들은 퇴계의 문장에 주석을 달 수 있었을까? 이는 퇴계와 같이 공부했던 경험의 소산으로 보인다. 『朱子書節要記疑』는 문인들과 함께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는데 바로 이

경험이 퇴계의 문인들에게 이어져 퇴계의 문장에 주석을 달게 된 것이다. 즉, 퇴계의 문인들이 퇴계의 문장에 주석을 단 것은 퇴계의 글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방도이며 또한 퇴계의 학문 방법의 하나로 퇴계와 함께 공부한 경험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점이 퇴계의 문인들이 퇴계의 학맥을 이어나가며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원전에 대한 정확한 이해 위에서만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고 더 깊은 해석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이러한 공부방법이 전통으로 굳어져 학문에 대한 정밀한 탐색이 이루어졌기에 퇴계의 학맥이 끊임없는 생명력을 가지고 전개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퇴계 학문의 한 방법으로 보이는 철저한 원문 독해(주석 작업)를 매헌 금보가 남긴 「도산기고증」과 「정존재잡고증」을 통하여 살펴보고 그 자료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매헌 금보에 대한 자세하고 치밀한 고증을 한 후에 「도산기고증」과 「정존재잡고증」을 자세하게 분석하였다.

이박사는 이 글을 맺으면서, “「도산기고증」과 「정존재잡고증」 자체가 갖는 의미는 소략하기는 하지만 「도산기」와 「정존재잡」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글이 가지는 의미를 적극적으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고전을 연구하며 작품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찾는 데 치중해 왔다. 문집에 대한 주석 작업을 소홀히 여겼던 것도 사실이다. 지금까지 공구서나 문헌이 풍부하지 못했던 옛날 우리 선현들은 사승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의 견해를 후학에게 전수하였다. 퇴계 문하의 학문 방법은 원문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퇴계에서 시작하여 계속 퇴계 일문의 공부하는 정통적인 방법으로 굳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 이와 같은 스승의 글에 주석을 단 자료까지 생기게 된 것이다. 통상 자신의 시문에서 일반 독자들이 잘 알 수 없는 전고

나 사실을 쓸 때, 주석을 달아 독자의 이해를 돕는 경우는 종종 있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스승의 글에 대하여 주석을 단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게 된 것은 퇴계가 퇴계의 제자들과 함께 공부하며 꼼꼼하게 분석하고 주석을 붙이는 작업을 한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이는 퇴계의 학문이 퇴계 사후에도 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연찬될 수 있었던 근원적인 힘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도산기고증』과 『정존재잡고증』은 퇴계학문 방법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금보의 퇴계에 대한 존모의 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라고 하였다.

조선 중기 문인 신취는 原學에서 “才는 반드시 학문을 말미암아 이루어지며, 학문은 반드시 스승을 말미암아 밝아지니, 학문의 근본은 스승을 존경하는 데 달려 있다.(才必由學而成 學必由師而明 學之本 在於尊師)”고 하였다. “퇴계 문하의 학문적 번성과 관련하여 새겨볼 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였다. 발표자의 참신한 이론과 치밀한 고증을 거친 논문이어서 해박한 식견을 펴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발표자인 고려대학교 김인철 박사는 「退溪學派 文集所載 箴銘類에 대한 考察」이란 주제로 발표하는데, 오늘 발표는 학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박사는 이 주제 발표에서, “退溪는 학문과 진리에 대한 敬畏心을 가슴에 품고 일생 동안 시종일관 求道者의인 자세로 자기 수양과 그것의 도덕적 실천을 통해 儒學의 理想的 理念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였던, 朝鮮의 대표적인 道學者요 性理學者라고 할 수가 있다. 유학의 이상적 이념이란 흔히 修己治人이라는 말로 압축되지만, 퇴계에게 있어서는 治人보다는 修己의 측면에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퇴계가 사상적으로 治人의 측면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취급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治人에 앞서 그 根柢로서 개인의 道德的 修養

과 實踐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퇴계는 修己의 측면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퇴계의 ‘대표적 저술의 하나’인¹⁾ 『聖學十圖』가, 어린 宣祖에게 聖王이 되기를 바라는 誠心에서 제작해 바친 것이면서도, 治國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보다도 敬思想을 중심으로 하여 爲己之學의 각도에서 자기 수양을 강조하고 있다는 데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聖王이기 이전에 먼저 하나의 이상적인 인간 즉 聖인이 되고자 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聖學十圖』의 ‘聖學’은 ‘聖王이 되게 하는 학문’이라기보다는 ‘聖인이 되게 하는 학문’이라는 뜻으로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온당하리라고 본다. 따라서 『聖學十圖』는 비록 퇴계가 왕에게 올린 것이기는 하지만 기대 가능한 독자로는 왕뿐만 아니라 당대의 선비 또는 성리학자²⁾는 물론 제자나 후대의 학자들까지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럴 경우 퇴계에 의해 종합적으로 제시된 性理學 聖學思想의 여러 요소들이 당대의 학자를 포함해서 제자와 후학들에 의해 어떠한 모습으로 계승·발휘되었는지 검토하는 작업이 요청될 수 있을 터인데, 본고는 바로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준비된 것이다. 즉 退溪學派 文集 所載 箴銘類를 중심으로 『聖學十圖』가 담지하고 있는 자기수양의 중요한 부면들이 어떻게 수용·계승되고 있는지 검증해 보고, 그를 통해 퇴계학과 학자들의 修己指向의 학문적 성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箴銘類를 주된 검토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聖學十圖』에 「西銘」, 「敬齋箴」, 「夙興夜寐箴」과 같이 箴銘類가 비중 있게 취급되어져서이기도 하지만, 작자 스스로 삼가고 경계할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箴銘의 문체상의 특징을 염두에 두고 볼 때, 퇴계학과의 修己의 性格을 파악하는 데에 있어

1) 윤사순, 이황의 『성학십도』, 『圖說로 보는 한국 유학』, 예문서원, 2000, 89쪽.

2) 윤사순, 전거서, 129쪽.

다른 문체에 비해 더욱 효과적일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이다.³⁾”라고 머리말에서 밝히고 있다.

그리고 발표지는 논문 본문에서 退溪學派 文集所載 箴銘類에 대한 道統의 確認과 自任 그리고 自己修養의 綱目과 그 推移에 대한 치밀하고도 자세한 분석을 통한 검토의 결과, “퇴계가 『聖學十圖』로 집약해 표명해 놓은 修己 중심의 학문적 특성이 그의 제자와 後學들에 의해 전승·발휘되어진 양상들을 그들의 文集所載 箴銘類의 작품들을 검토해 봄으로써 퇴계학과 학자들의 修己指向의 性格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준비되어진 것이다. 이제 지금까지 논의해 온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그러한 전승 양상이 갖는 의의를 되새겨 보는 것으로써 결론을 삼고자 한다.>고 전제하고는, 먼저 道統觀과 관련해서 <『聖學十圖』가 후대 학자들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다. 물론 퇴계 역시 당대의 다른 성리학자와 마찬가지로 堯·舜·禹·湯·文武·周公·孔子·子思·孟子로 이어지는 유학의 기본적인 도통관념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聖學十圖』에서는 「大學圖」를 제외한 나머지를 거의 宋代의 대표적인 성리학자들의 저작을 중심으로 구성함으로써 자신의 학문적 관심과 특성을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즉 자신이 계승할 직접적인 학문의 원천으로서, 또 聖學의 실천적인 規矩로서 性理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도통과 관련해 『聖學十圖』가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미묘한 機軸의 차이, 환언하자면 孟子 이전의 도통을 아우르면서도 性理學 中心으로의 변화는 이후 퇴계학과 학자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수용, 계승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鶴川과 虎溪의 銘에 나타나는 서술초점의 차이와 揅省堂의 「座右銘」은 바로 그러한 퇴계의 관

3) 본 논문에서는 『訥齋集』(安東大學校 圖書館本)과 安東大學校 退溪學 研究所에서 펴낸 『退溪學資料叢書』 1책~60책까지에 실려 있는 箴銘작품을 연구대상으로 하되, 작가, 문집과 작품에 대해서는 논문 뒤에 제시한 도표를 참고 바람.

점이 직·간접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다음으로 퇴계학과 학자들의 自己修養의 양상과 그 推移와 관련해서이다. 퇴계가 이미 『聖學十圖』를 통해 성리학의 敬思想을 핵심으로 하여 자신의 학문적 성격을 천명하였으므로 그 후학들 역시 居敬窮理, 下學上達이라는 성리학의 기본적인 원칙을 충실히 계승해 나간다. 그러면서도, 도통관의 경우에서처럼, 시간적 차이로 인한 성리학 수용의 爛熟度에 따라 그 중심 교의가 일상 속에 깊이 침투해 들어가는 구체화·세분화의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格物致知가 讀書로 구체화되고, 正心修身이 心戰·銀鐵로 형상화되며 訥言慎行이 守口如瓶 등으로 세분화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瑣瑣한 것에 埋沒된 것이 아닌 한, 학문의 生活化·自己化(體認)를 위한 진지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퇴계학과 학자들의 자기 수양의 양상은 시간적 흐름에 따라 구체화·세분화를 동반하는 긍정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연구과제와 관련해 첨언한다면, 원래 箴銘類의 작품은 작자의 다른 詩·文과의 면밀한 조응작업을 통해 그 내밀한 면까지 읽어낼 수 있어야 온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인데, 본 논문에서는 그러한 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였다. 그런 점에서 작가 위주의 개별적인 고찰은 향후 연구과제라 할 수 있겠다.>고 함으로써 후학들을 위한 연구 과제도 함께 밝히고 있어서 학계에 크게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 발표자로 숙명여자대학교 이정화 박사는 「退溪門人の 退溪精神과 樓亭題詠에 반영된 계승 양상」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것이다.

이 박사는 그의 논문 머리말에서, <퇴계와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聖人の 학문을 공부하는 시기는 인생의 일정한 기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선비로서 평생 행해야 할 本業이었던 것이다. 『論語』에 따르면, 儒者에게

는 德으로 나아가는 차례가 있어서, 공부하는 자는 반드시 법을 세워 구덩이를 채운 이후에야 나아간다고 한 말이 있다.⁴⁾ 이는, 孔子는 聖人이기에 나면서부터 아는 분(生而知者)이었지만, 後人들에게 권면하여 나아가게 하기 위해, 배움으로 말미암아야 지극한 경지에 도달한다고 말하였던 것⁵⁾에서 연유한 말이다. 달리 말하면, 學者는 첫째, 한가로이 自得하여 聖學의 은혜가 몸에 폭 젖어 들게 해야 하며 단계를 뛰어넘어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점과, 둘째, 공부하는 사람은 日就月將해야 하며 중도에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는 점⁶⁾을 강조한 것이다.

한가로이 自得하여 聖學의 은혜가 몸에 폭 젖어 들게 해야 하며 단계를 뛰어넘어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논어』에 함의된 공자의 가르침이었으므로, 이처럼 優遊涵泳을 실현하기 위해서 퇴계와 그의 제자들이 처소가 가까이에 누정과 같은 講學의 공간을 짓는 것은 그들에게 자연스러운 사업이었다. 퇴계는 평소 제자들과 함께, 누정과 같은 탁 트인 공간에서 유자가 행해야 할 본연의 임무에 대해 성찰하였으며, 학업에 힘쓰는 것을 더욱 충실하고자 하였다.⁷⁾

번잡한 朝市와는 거리를 둔 背山臨水의 勝景地에 누정을 세우는 일은 선비의 삶에 錦上添花와 같은 생활을 제공하였다. 퇴계가 강학했던 근거지를 중심으로 하여 집중되어 있는 퇴계 문도들의 누정은 그야말로 光風霽月의 名所가 많다.

퇴계 문도들이 제작한 누정제영에서는 스승 퇴계와의 추억이 깃든 누정

- 4) 『論語』卷之二「爲政」, “孔子自言其進德之序如此者 聖人未必然 但爲學者立法 使之盈科而後進.”
- 5) 『論語』卷之二「爲政」, “程子曰 孔子生而知者也 言亦由學而至 所以勉進後人也.”
- 6) 『論語』卷之二「爲政」, “聖人言此 一以示學者當優遊涵泳 不可躐等而進 二以示學者當日就月將 不可半途而廢也.”
- 7) 拙稿, 「退溪詩 研究-樓亭漢詩를 中心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제2집, 한국사상문화학회, 1998, 참조.

을 찾았을 때의 심정과, 퇴계와 사별한 후, 스승의 누정제영이 남아 있는 곳을 답심했을 때의 마음이 표출되며, 간혹 독자에게 누정 주변의 빼어난 풍광을 선사하기도 한다.

본고는 퇴계 문도들이 제작한 누정제영을 통해, 스승 퇴계의 학문정신이 어떻게 계승 발전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퇴계의 누정시에 내재하는 도학적 시정신의 본질에 대해 고찰하고, 아울러, 퇴계 문인들의 누정제영에 수용된 학퇴계 정신의 양상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본론에서 退溪 文學精神의 본질과 樓亭題詠에 반영된 學問精神을 고구하고, 退溪門人의 樓亭題詠에 나타난 學退溪 精神의 의미를 天理의 체득을 향한 景濂亭 踏尋, 鳴玉臺의 山水와 淸純의 志趣, 錦陽精舍에 깃든 超然한 기상, 孔孟의 학문과 觀水樓의 사유공간에서 찾아야 한다고 하고, 논문을 마무리하면서, <첫째, 學退溪 정신의 본질을 탐색하기 위하여, 退溪 文學精神과 樓亭題詠에 반영된 學問精神의 근간에 대해 살펴 보았다. 퇴계는 嘉言과 善行으로 言行一致 내지는 知行合一을 실천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을 뿐더러, 제자들에게 儒家的 삶과 목표와 이와 관련된 실천방법을 적극적으로 일깨웠다. 이로 인하여, 聖人의 말씀을 좇아 평생 학자의 마음으로 공부하였던 점은 퇴계문도들이 견지한 생활철학의 핵심라 할 수 있다. 승경지에 자리한 누정이 강학의 공간으로 활용되는 등 역대로 사대부들의 사랑을 받은 까닭은 聖人을 흠모하는 儒者들의 정신세계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퇴계는 어쩔 수 없이 산수자연으로 도피한 것이 아니라, 일찍이 山水之樂을 알았고 이로 인해 삶의 목표가 山林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였는데, 산수자연이 퇴계에게 주는 혜택은 朝市에서의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해 주는 것이 되기도 하였다.

그는 산수자연물에 힘입어, 성학에 잠심하여 마음을 편안히 수행할 수 있

었으며, 여기에서 비롯된 山水之樂을 누정제영을 통해 직접 표출하기도 하였다. 이럴 때에 그의 작품에서, 實景의 敍景은 단지 의취를 알리기 위한 예비적 역할을 할 뿐이다. 퇴계는 누정과 그 주변경관을 시를 제작할 때에도 변함없이 曾子, 顏子, 屏山, 朱晦翁의 학문정신을 되새기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둘째, 퇴계문인들의 누정제영에 반영된 학퇴계 정신의 계승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퇴계와 그 문도들이 제작한 경림정 제영시편들은, 대체로 누정과 주변경관은 遊賞의 대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가 자신과 자연경관이 그렇게 있는 이유 즉 내재하는 理를 찾아내는데 필요로 하는 관조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금계의 경우, 대자연의 모든 생명체에서, 심지어 풀 한 포기에서도 하늘의 이치를 생각하는 스승의 의취에 공감하며, 자신도 “風月無邊趣”라고 읊조리며 스승에게 속마음을 보이고 있다. 송암도 역시, 孟子的 “俯仰不愧天地”를 근거로 하여, 스스로 公明正大한 마음을 일깨우고 있다.

명옥대에 오른 퇴계는 영원한 不動의 자세를 간직한 바위를 예찬하는 것으로, 자신의 시상을 의연하게 매듭지었다. 특히, “蒼巖”은 依舊한 바위의 偉容을 예찬한 시어인데, 후대에 退陶文人들은 이 말을 편액으로 하여, 명옥대 곁에 蒼巖精舍를 세움으로써, 스승이 머물렀던 유적지에서 그의 고결한 시정신을 칭양하였다. 즉, 一竹齋는 속세에 혼탁해진 마음조차 “清寒” 곧 맑고 시원한 마음으로 치유된다고 설파하여, 명옥대라고 命名한 스승 퇴계의 지취는 바로 이러한 맑고 시원한 마음을 함양하려는 데에 있었음을 깨닫는다. 또, 訥隱의 경우, 스승이 밟아간 길을 기꺼이 좇으며, 그의 학문을 계승하며 살아가는 제자의 자긍심을 작품에 반영하고 있다.

퇴계의 경우, 卒去한 제자 금계의 이루지 못한 宿願을 돕기 위해, 1566년에 금양정사에 대한 完帖을 제작한 바 있다. 그는 竹林七賢의 故事를

전고로 하여, 금계와의 교유 또한 이들처럼, 俗됨을 벗어난 超逸한 기상으로 맺어진 것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겸암의 글에서는 師弟關係로 맺어진 퇴계와 금계의 인연에 대해 상술하였는데, 그것이, 生死를 초월한 師弟間의 영원한 交分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었다. 금계의 제영시는 퇴계시의 영향을 받아 그 意趣가 강조되는데, 이는 곧 혼탁한 塵世에서 때를 묻히는 것을 혐오하여, 신선의 공간으로 인식된 산수에서 정신적인 자유로움을 추구하기 위해 꿈꾸는 超逸의 경지다.

한편, 퇴계는 관수루에 올라 이곳이 바로 “妙悟” 즉 오묘한 깨우침을 知覺할 수 있는 훌륭한 장소라고 칭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가는 물의 이치가 군자의 수양과 비슷하다고 여겨 물을 예찬했던 공자의 가르침에 공감하였다. 또, 忠君이외에는 여념이 없을 때 그의 마음은 公人意識을 표출하게 된다. 江臯의 경우, 편액으로 걸려 있는 퇴계시를 우러르며 스승 퇴계의 정신을 반추하는 것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경건하게 할 때, “觀水固有術”을 읊조리며, 흥취보다는 의취를 드러내려 애쓰고 있다. 性齋의 작품에서는,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오갈 때마다 낙동강의 나루터 근처에 위치한 관수루와 그 주변경관을 놓치지 않아서 빼어난 안목을 지닌 시인기질을 보일 뿐만 아니라, 웅대한 기상을 펼쳐 보이기도 한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에 의하면, 퇴계에서 있어서 자연에 대한 酷愛와 학문에 대한 熱情은 불가분의 것이었거니와, 이는 퇴계학파의 문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 후대에까지 處士文學의 본보기로 계승되어 왔다. 본고는 누정제영에서 확인된 意趣를 통하여, 퇴계를 흠모하는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는 퇴계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에게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네 번째 발표자로서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서신혜 박사는 「선산 지방 書院의 毀撤과 〈烏有居士傳〉」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다.

서 박사는 이 주제 발표에서 특히 “선산 지방 서원의 존폐와 관련 이 지역 선비들의 의식을 형상화한 소설 〈오유거사전〉에 얽힌 몇 가지 문제를 다룬 것이다.

서원과 고소설은 언뜻 서로 연결시키기가 어렵다. 그러나 『일선지』와 『일선속지』의 뒤편에 각각 부록된 몽유록 소설 〈금생이문록〉과 〈오유거사전〉⁸⁾의 경우는 분명 서원관련 문제를 작품의 중심에 두어 형상화한 것이다. 전자는 『일선지』에 실린 선산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등장시켜 금오서원 봉안 인물들의 位次 문제를 다루었다. 후자는 선산 지방 수많은 서원들이 毀撤된 것에 대한 울분을 토로하였다. 소설로 서원의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는 두 작품이 같지만 각각 다루는 방식이 다를 뿐더러 전자에 관해서는 이미 상세한 논고⁹⁾가 있으므로, 논의의 초점을 〈오유거사전〉에 집중 논의하고자 한다.”라고 하고는 서원의 浮沈과 善山, 〈오유거사전〉의 시간 배경과 창작에 담긴 의도, 작품의 시간적·사회적 배경, 〈오유거사전〉의 특성과 창작에 담긴 의도, 결말 처리와 관련한 남은 문제를 고구하고, 그의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書院 毀撤과 복설운동, 선산지방의 士類문화와 관련하여 소설 〈오유거사전〉을 살펴보았다. 〈오유거사전〉은 김지원이 1901년에 써서 『일선속지』 天卷 뒤에 덧붙여 놓은 몽유록 작품으로, 서원 훼손 이후 이에 대한 士類의 안타까운 마음을 표시하면서 享祀를 재개하는 내용을 쓴 작품이다. 이 작품에 관하여 특히 그 시간적 배경과 인물 설정상의 이유를 살펴보고, 인물의 단순한 제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오

8) 崔暎과 金志遠이 각각 편찬한 『一善誌』와 『一善續誌』는 선산문화원에 의해 간행되었다. 전자는 『善山文化』4호(1990년)로 간행되었고, 후자는 단원책명으로 1985년에 간행되었다. 그리고 각기 이 책 안에 〈금생이문록〉과 〈오유거사전〉이 수록되어 있다. 이 글에서 인용할 때에는 이 책을 기준으로 한다.

9) 홍재휴, 『금생이문록-몽유록계 소설의 新資料』, 『국어교육연구』2집(경북대 국어교육연구회, 1971), 145~161쪽. ; 신혜진, 『조선중기 몽유록의 연구』(박이정, 1998), 162~192쪽.

유거사전)의 창작 의도와 기능 등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논의 요약은 하지 않기로 한다.

〈오유거사전〉이 흔히 소설에서 쉽게 나올 법하지 않은, 선비들의 享祀 관련 문제를 다룬 것은 그 소재상 특이하여 흥미를 끄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조선 중기의 최현이 쓴 〈금생이문록〉과 관련하여 짝을 이루도록 작품을 구성한 것도 특이하면서 흥미롭다. 선산이라는 특수한 지역을 두고 반복적으로 서사 작품이 나타나는 점은 지방문화사적인 면에서도 다룰 만한 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실제 인물을 단순나열하기만 하였을 뿐 그런 인물들의 특정 목소리나 모습, 의식 등을 형상화하여 실제 사건을 전개시킨다거나 하는 내용 없이 享祀만을 반복 제시하는 것으로 작품을 구성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문학적 성취는 그리 뛰어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1901년이면 나라의 운명이 급박할 때이고 이를 둘러싼 중대한 일들이 숨가쁘게 일어나던 때이다. 그런데 이런 때에 고장의 세력 부흥과 서원 제향의식의 재현 등을 꿈꾸고 이를 그리는 역사의식은 평가 절하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학계에 참신한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확신하는 바이다.

마지막 발표자인 부산대학교 유영옥 박사의 주제는 「退溪及門諸賢 집안의 古文書 分布現況」이라는 것이다.

유 박사는 이 글의 머리말에서, 〈義城人 鶴峯 金誠一은 西厓 柳成龍과 月川 趙穆과 함께 退溪문화의 세 領袖라 일컬어지는 及門의 高弟이다. 김성일은 溪門에 從遊하여 性理哲學뿐 아니라 禮學에도 깊은 學的 관심을 두고 질차탁마했다.〉¹⁰⁾ 그의 文集에 수록된, 師弟간에 禮制를 논한 수십

10) 『退溪全書』 「退陶先生言行通錄」 所載 총 663건의 언행록 가운데, 기록을 제공한 14명의 문인 중 학봉의 기록이 19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198건 중 論氣論은 5건인데 비해, 論禮制는 25건으로 비중이 제일 높았다. : 李相殷, 「鶴峯先生の 學問思想의 傾向」 「退溪門下 6哲의 삶과 사상」,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예문서원, 1999,

조목의 問答이나 「奉先諸規」와 「吉凶慶弔諸規」 및 「喪禮考證」 등을 보면,¹¹⁾ 학봉 학문의 정수가 禮學이라 해도 가히 과언이 아닐 것이라 여겨진다.¹²⁾

지금까지 퇴계학맥에 대한 연구는 『陶山及門諸賢錄』을 중심으로 다방면에서 지속되어 왔지만, 학봉의 예학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¹³⁾ 이에 本考는 학봉의 제례 의식에 주목하여 退溪 禮說의 주요 계승자로서의 학봉 예학을 단편적이거나 살펴보고자 한다.

서두에 한 가지 언급할 것은 그 동안 師承관계나 學統 논의에서 등한시되었던 고문서 자료를 本考의 논지 전개에서는 보조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고문서 자료는 사회경제사나 생활사 연구 분야에 주로 이용되고 있지만, 學問과 思想 분야에도 다양한 접근을 가능케 하는 매력적인 기록이다. 義城金氏 川前派의 일부 고문서를 통해¹⁴⁾ 門中 享祀의 제반 양상을 참고

118~119쪽 참조.

- 11) 鶴峯의 文集에는 「上退溪先生問目」과 「退溪先生言行錄」에 기재된 禮疑問答, 그의 禮의식과 실천을 보여주는 行狀 기록, 1581년 父親喪의 여묘산이 도중에 저술한 「喪禮考證」과 편지 「與成人」, 1587년에 작성한 「奉先諸規」와 「吉凶慶弔諸規」, 1590년 일본 使行時 倭僧 宗陳에게 지어준 「朝鮮國沿革風俗考異」 등 예학 관련 내용이 다수 산재되어 있다.
- 12) 金彥鍾, 「鶴峯先生の 禮學」, 『退溪門下 6哲의 삶과 사상』,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예문서원, 1999, 164쪽 참조.
- 13) 李相殷, 「鶴峯先生の 學問思想的 傾向」, 『鶴峯의 學問과 救國活動 -言行錄을 中心으로 한 考察』, 鶴峯金先生紀念事業會, 1993.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退溪門下 6哲의 삶과 사상』, 예문서원, 1999, 제수록)
金彥鍾, 「鶴峯先生の 禮學」, 『鶴峯의 學問과 救國活動』, 鶴峯金先生紀念事業會, 1993.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退溪門下 6哲의 삶과 사상』, 예문서원, 1999, 제수록)
- 14) 의성김씨 천전파(내앞파)는 17대 萬謹(학봉 증조부)이 海州吳氏와 혼인하면서부터 안동부 臨河縣 川前里에 자리를 잡았다. 천전파는 안동에 정착한 이래 400여 년간 안동의 大姓·望族으로 세거하면서 퇴계학파의 적통원인가로서 영남사람의 논의를 주도해왔다. 이러한 명문대가의 지위를 입증하듯 傳存해온 고문서도 분량이 방대하다. : 박병호, 「제8장 공정성의 개념과 실천」, 『조선양반의 생활세계-義城金氏 川前派 고문서 자료를 중심으로』, 백산서당, 2004, 422쪽 참조.

한다면, 학봉 禮學의 이론과 실천을 더욱 정밀하게 推尋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영남지역 퇴계학맥의 研覈에 하나의 試論이 되고자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박사는 그의 논문 본론에서 祖先 숭배와 保宗 의식, 禮書와 時俗의 수용과 조화, 퇴계와 禮疑問答, 宗法의 실행과 한계, 宗法의 실행과 한계, 時祭와 墓祭의 양상, 禮宜從厚의 경향 등에 대한 치밀한 검토를 한 후에, <성리학 이념은 禮治를 강조한다. 그러나 禮法은 동서고금이 같지 않다. 古禮와 今禮, 禮書와 通俗이 다르고, 常禮 이외의 變禮 또한 다양하다. 그러므로 예학자들은 시대적 재해석과 응용을 통해 가장 적실한 예제의 실천 방안을 재구하고자 한다.

鄒魯之鄉의 안동에서 퇴계의 衣鉢을 전수한 及門高弟 학봉도 制度와 成俗이 禮書에 맞지 않는 여러 조목들을 고민했고, 스승에게 질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禮論을 조율해나갔다. 특히 부친 靑溪公의 뜻을 받들어 祖先을 향사하는 일과 중가를 保衛하는 일에 깊은 관심과 실천을 보였다.

제례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주자의 『가례』를 근본으로 삼아, 時祭를 중시하고, 기제사의 가묘 설행을 주장했으며, 代盡한 조상의 묘제를 1년에 1번 준행하고자 하였다. 또 禮宜從厚의 뜻으로 3대 봉사에서 4대 봉사로 전환하여 門中의 定式으로 삼았고, 享祀의 3일 재계를 철저히 준수하였다.

그렇지만 時俗은 무시하고 禮書만을 추종하는 경직성은 보이지 않는다. 학봉은 한편으로 禮經·禮書를 존승하는 관점에서, 한편으로 俗禮와 時王의 제도에 순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관점에서 양자의 조화를 모색하였고, 그 속에서 언제나 敦厚한 人情으로 行禮하고자 하였다.>는 결론을 도출해 내고 있어, 학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5. 맺는 말

이상으로 다섯 분의 주제발표를 마치면 곧 이어서 이문기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대구 한의대 김종철 교수, 동국대 오용원 교수, 경북대 우인수 교수, 영남대 이수환 교수, 경북대 정우락 교수의 종합토론이 진행되고, 또한 방청석의 질문을 함께 받아 논문완성에 참고하고 이를 보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를 맡아 주실 다섯 분의 전임연구원과 종합토론에 참가해 주실 교수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회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끝까지 경청해 주시어 학술대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학술발표회에 참석하신 두 학회 회원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들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하며,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와 국제퇴계학회대구경북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論語』

『訥齋集』, 安東大學校 圖書館本.

『조선양반의 생활세계-義城金氏 川前派 고문서 자료를 중심으로』, 백산서당, 2004.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영남지역의 퇴계학맥과 그 문화, 제29차 학술대회 발표요
지, 2005.

金彦鍾, 「鶴峯先生の禮學」, 『鶴峯의 學問과 救國活動』, 鶴峯金先生紀念事業會,
1993.

안병걸, 「매헌선생문집해제」, 『퇴계학자료총서4』, 안동대학교 퇴계학연구소, 1994.

윤사순, 「이황의 『성학십도』」, 『圖說로 보는 한국 유학』, 예문서원, 2000.

이가원, 「도산잡영과 산수지락」, 『퇴계학보』 46, 퇴계학연구원, 1985.

李相殷, 「鶴峯先生の 學問思想의 傾向」, 『退溪門下 6哲의 삶과 사상』, 경북대학
교 퇴계연구소, 예문서원, 1999.

이정화, 「退溪詩 研究-樓亭漢詩를 中心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제2집, 한국사상
문화학회, 1998.

Abstract

<Keynote Speech>
The Toegye-hak in Yongnam Area and Its Specific Culture

Kim, Kwang-Soon

It's my honor to make a keynote speech in Spring Conference of The Toegye-hak(退溪學) in Yongnam(嶺南) area and its specific culture held by Toegye Studies Institute in Kyungbuk National University and Daegu and Kyungbuk branch of the Society of International Toegye Studies. The conference included in prior step of The construction of data base for the Toegye-hak in Yongnam area and its specific culture was named as such for convenience. The research team is composed of 3 professors as coworkers-Park Youngho, Lee Moongi, Kang Mingu and 5 full-time researchers, 7 Ph.D course students, 8 master's course students, and me as principal researcher.

The subject of The construction of data base for the Toegye-hak in Yongnam area and its specific culture was elected as one of the national policy subject by Korea Research Foundation in terms of basis learning supporting program in August 1, 2002.

Prior to the presentation of papers, it will be announced that the purpose and plan of the subject, research way and results up to now. And the basic research directions of today's papers being announced are as bellows.

At first, professor Lee Kunsun will announce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of Dasangi of Maeheon Geumbo. And next we will have the presentation about Self-cultivating Characteristics displayed in Exhortation and Inscription Works in Anthology of Toegye School Scholars by professor Kim Incheol.

Professor Lee Jeonghwa will announce The aspects of succession of Nujeong Jeyoung in respect for the spirit of Toegye of Toegye's scholastic lineage then. And the next presentation by professor Seo Shinhye will be A Study on the removal of lecture-hall in Seonsan and Oyugeosajeon.

With the presentation by professor Yu Youngog in the name of Hakbong Kim, Sung-il's thoughts and performance of the memorial services for the

ancestors the presentation session will be ended.

After presentation by 5 people, open debate will be held with professor Lee Mungi as chairperson, professor Oh Yongwon, professor U Insu and professor Jung Ulak.

And also there will be session of receiving hearer's question. I think it will be great helpful to accomplish this project's purpose.

Lastly, I'd like to show my special thank you for their great efforts to prepare presentation and discussion session. Thank you again.

Key Word

Specific Culture, Korea Research Foundation, Toegyehak in Yongnam area, project's purpose